

조계사 법등 모임이 올해 6월 만발공양간 봉사활동을 진행한 후 촬영한 단체사진. 사진 제공=조계사



봉은사 기초학당 교육생들이 사찰음식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봉은사

늘어나는 새신도…사찰도 신행 정착 지원 강화

호감이 관심으로, 관심이 신행으로

2. 어서오세요 새신도님

하성미 · 김내영 기자

'힙(Hip) 불교' 열풍과 선명상 확산으로 사찰을 찾는 새신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각 사찰도 불교와 처음 인연을 맺는 이들이 낯섦을 덜고 자연스럽게 발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내와 공동체 활동, 맞춤형 상담 등을 통해 '진정한 불자'로 성장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는 최근 새신도 증가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본교육부터 신행 모임, 봉사활동까지 촘촘한 시스템을 갖추고 새신도의 안정적인 신행 활동을 지원한다.

조계사는 매년 3·6·9·12월 불교기본교육을 운영하며 새신도들에게 불교 기초 교리와 신행 활동 등을 안내한다. 직장인과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오전·오후·야간·토요반으로 나눠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

새신도 증가세에 맞춰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교육생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조계사에 따르면 2021년 불교기본교육 신청자는 487명이며 이 가운데 460명이 수료했다. 2022년에는 신청자가 769명으로 크게 늘었고 701명이 과정을 마쳤다. 2023년에는 958명이 신청해 841명이 수료했으며 2024년에 830명, 2025년에 901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558명이 참여해 불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기본교육 수료가 단발성 경험에 끝나지 않도록 2024년 3월부터는 새신도 신행 프로그램인 '법등 모임'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교육생 10명 안팎으로 조를 편성해 법등장을 두고 담임 스님을 배정, 수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신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법등 모임에서는 〈천수경〉 독송을 비롯해 도반들과의 교류, 공양간 봉사, 불교문화유산 답사 등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월 1회 경기권 사찰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불교문화유산 답사에서는 문화해설사에게 사찰의 역사와 불교문화를 배우고, 전각에서 함께 기도와 축원을 올리며 불교문화를 몸소 체험하도록 돕고 있다. 사찰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불교가 주는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신도들의 호응도 높다. 조계사가 올해 4월 기본교육 수료생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등 모임 참여와 신도단체 활동 연관성' 설문조사에서 〈천수경〉 독송과 도반 교류, 문화유산 답사 프로그램이 각각 20% 안팎의 높은 선호도를 보이며 가장 참여하고 싶은 활동으로 꼽혔다.

새신도 지원을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전담부서인 '신행국'도 신설했다. 신행국은 법등 모임 운영을 전담하며 기본교육 이후 불교대학과 불교대학원, 경전반 등 심화 과정으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새신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법등 모임'의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자체 굿즈를 제작해 봉사와 모임 등에 꾸준히 참여한 신도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초심자도 쉽게 사찰을 둘러볼 수 있도록 '조계사 지도형 참배 가이드'와 '포켓용 천수경 기도집'도 새롭게 제작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올해 2월 관음전 앞에 조성된 '초심자 정원'이다.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이 공간은 불교 입문자를 위한 오프라인 상담소다. 조계사에서 15~30년 동안 봉사해 온 불자들로 구성된 자비신행 협력위원회와 법등 모임 봉사자 등 27명이 매일 교대하며 참배 방법부터 신행생활, 교육 프로그램, 신도단체 가입까지 새신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있다.

운영 4개월여 만에 젊은 층의 발길도 눈에 띄게 늘었다. 혜안수 초심자 정원 운영위원은 "최근에는 선명상과 봉사활동, 청년회 가입 등을 문의하는 젊은 방문객이 많아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며 "초심자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차근차근 설명하며 불교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조계사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양질의 신행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새신도가 자연스럽게 불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조계사 신행국장 혜원 스님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듯 한 명의 새신도가 불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사찰 전체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젊은 세대와 접점은 넓혀가되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많은 분이 이 도량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올해 2월 조성된 조계사 '초심자 정원'.

조계사, '초심자 정원' 연중무휴
새신도 전담부서 '신행국' 신설

봉은사, 기초학당 4개월로 확대
사찰음식 등 체험 프로그램 '인기'

지역 사찰도 멘토링 · 단계별 교육
신심 증장 · 소속감 형성에 최선



봉은사 새신도 안내 창구.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 역시 새신도 유입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5만 명이 다녀간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열린 코엑스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에 더해, 선명상 열풍까지 이어지면서 젊은 층의 발길이 꾸준히 느는 것이다. 특히 박람회를 계기로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 30대의 유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봉은사는 체험 중심의 교육과 신행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새신도가 봉은사를 찾으면 가장 먼저 신도안내 창구에서 교육과 기도, 신행 프로그램 등을 안내받는다. 불교에 익숙하지 않은 방문객들을 위해서는 매월 첫째 주 일요일 별도의 입문교육을 열어 봉은사와 참배 예절을 안내하고, 사시기도와 법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봉은사는 무엇보다 새신도를 기초학당으로 이끄는 데 집중하고 있다. 불교를 제대로 이해해야 이후 신행과 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학당을 수료하면 신도회 활동과 불교대학, 불교대학원 진학은 물론 지화반과 불화반, 사경반, 선무도 등 다양한 문화강좌에도 참여할 수 있다. 대중의 관심과 수요를 반영한 봉은사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가장 큰 변화는 기초학당 교육과정 개편이다. 봉은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교육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했다. 최근 교육과정을 단축하는 추세와 달리 한 달을 더 늘린 것은 교리 위주의 강의보다 직접 체험하고 몸으로 익히는 교육이 새신도의 정착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봉은사 사찰음식연구소장 동원 스님이 이끄는 사찰음식 체험을 비롯해 108배 수행, 봉사활동, 템플스테이 등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신설했다. 봉사활동은 신도회와 연계해 실제 봉사 현장을 경험하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기초학당 단계부터 도반을 만들고 공동체 활동을 경험하면서 신도회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생 대표를 선출하고 성지순례, 봉사활동 등을 함께 운영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체험 중심 교육은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 현재 봉은사 기초학당 재학생은 주간·야간·주말반을 합쳐 약 250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특히 30대 비중이 기존 12~15% 수준에서 19.5%까지 늘었고, 75기에 22명이던 30대 교육생은 76기에 48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대 역시 4명에서 7명으로 늘었으며, 40대와 60대 이상도 증가세를 보였다.

봉은사 '선명상 아카데미'의 인기도 빼놓을 수 없다. 정규 교육이 부담스러운 방문객을 위한 과정으로, 기초학당 수강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싱잉볼 명상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주제를 달리해 선명상에 대한 관심과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차혁진 봉은사 교무교육팀장은 "교무·교육·신도 조직이 하나의 체계로 유기적으로 연계돼 교육부터 법회, 신도회 활동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봉은사의 강점"이라며 "봉은사가 한국불교의 사관학교 역할을 해 봉은사에서 배운 불자들이 어느 사찰에 가더라도 올바른 신행을 이어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중심 사찰뿐 아니라 지역 사찰에서도 새신도 정착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각 사찰은 지역 여건에 맞춘 프로그램들로 초심자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양산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사찰 규모가 크고 방문 인원이 많아 '불교대학'을 초심자 입문 과정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1학년 과정에서 사찰 예절과 기초 교리를 익힌 뒤 2학년부터는 신행단체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단계별 교육 체계를 갖췄다. 매년 400명 이상이 불교대학에 입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청년층 유입이 늘면서 청년회 가입도 불교대학 2학년 이상 수료자를 기준을 정비하고 있을 정도다.

부산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는 세대별 멘토링 시스템으로 불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다. 새롭게 유입된 청년들은 기존 청년회 회원들로부터 절하는 법과 법당 예절 등을 배우며 신행에 적응하고, 어린이 법회 역시 또래와 선배들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따라 하며 불교문화를 익히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청년회와 어린이 법회 모두 신규 참여가 크게 늘었으며, 여름 어린이 수련회는 모집 4일 만에 정원이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부산 삼광사(주지 용암 스님)도 새신도들의 소속감 형성에 힘 쏟고 있다. 정기 환영식과 새신도 차담, 사찰 안내으로 구성된 3개월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을 거쳐 개인의 관심사에 맞는 신행단체와 지역 지회 활동으로 연계하고, 6개월마다 구인사를 참배하며 신심을 증장시키고 있다.

서점에도 '힙 불교' 열풍

불서 상반기 판매 전년 대비 21% 증가
불교 입문서 판매량 264% 급증 '눈길'
젊어지는 독자층 변화, '사찰음식' 주목

'힙 불교' 열풍은 서점가로도 번지고 있다. 불교가 힙한 라이프스타일로 소비되며 불서 판매량이 급증하는 추세다. 주요 서점의 통계는 이 같은 변화를 보여준다.

예스24에 따르면, 올 상반기(1.1~5.14) 불교 관련 도서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 늘었다. 알라딘의 불교 서적 판매량도 올 5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약 5% 증가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불교 입문서의 성장세다. 이 분야의 판매량은 예스24 기준 전년 대비 무려 264% 급증했다. 기존 불자층을 넘어 불교에 관심이 생기거나 불교를 처음 접하는 초심자들이 대거 유입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입문서로는 〈성불 한번 해볼까〉, 〈불교와 친해지는 만화 사찰의 상징세계〉, 〈이제서야 이해되는 법화경〉,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심리학〉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열풍의 중심에는 젊어지는 독자층이 있다. 헤르만 헤세의 고전 소설 〈싯다르타〉의 구매자 연령대별 분포에서도 이 같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예스24에 따르면, 이 책은 전체 구매자 중 20·30세대의 비중이 40%에 달했다. 10년 전인 2016년(21%)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치솟은 수치다. 알라딘의 온라인 판매 통계 역시 6월 24일 기준 30대(29.0%), 40대(27.5%), 20대(24.2%) 순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예스24의 〈싯다르타〉 판매량은 지난 3년(2023~2025년)간 꾸준히 증가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38% 늘었다. 이에 교보문고 종합 6위, 예스24 해외소설 3위 등을 기록하며 주요 서점의 차트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소설인 〈싯다르타〉가 20·30세대 중심이었다면, 일반 불교 서적은 30·40대의 약진이 돋보인다. 대형 서점 상반기 자기계발 부문 1위(교보문고·예스24)에 오르며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지킨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는 알라딘 기준 구매층의 40대(34.3%), 30대(29.4%), 50대(21.1%) 비중이 주축을 이뤘다.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을 책으로 재구성한 〈탁! 깨달음의 대화〉 역시 40대(36.6%), 50대(32.0%), 30대(17.9%) 순으로 집계됐다. 불교 서적의 주 소비층이 30·40대 세대로까지 넓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독자층의 연령대가 다변화되면서, 이들이 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도 한층 넓어졌다. 마음챙김이나 명상 관련 서적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더해 웰빙과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경향과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의 흥행으로 사찰음식이 세계적인 웰빙 미식 콘텐츠로 주목받으면서 관련 도서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올해 서울국제불교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불광출판사 부스에 전시된 책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제공=불광출판사

실제 예스24의 사찰음식 관련 요리서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01% 급증했다. 〈229가지 자연의 맛 선재 스님의 사찰 음식〉이 올 상반기 예스24 사찰음식 관련 도서 판매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교보문고와 알라딘의 요리 및 건강 도서 부문에서도 같은 책과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정관 스님 나의 음식〉 등이 상위권에 진입했다. 생명 존중과 절제의 가치를 담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향유하려는 대중의 선호 변화가 도서 구매로 이어진 셈이다.

주목할 점은 종교 서적 중 불교 서적만 홀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알라딘 김효선 도서2팀 차장은 "작년부터 〈초역 부처의 말〉이 많은 선택을 받으면서 대중들이 일반적인 인문서로서 불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입문서 수요도 늘어났다"면서 "종교 부문 전체는 5월 기준 전년 대비 플러스 성장률이 아니지만, 타 종교와 달리 불서만 유일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불서 판매 증가를 이끄는 원인은 무엇일까. 출판 업계는 젊은 층 사이에서 독서 자체를 매력적인 문화로 여기는 '텍스트 힙(Text Hip)'과 '힙 불교' 열풍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한다. 이와 함께 불교라는 종교 자체에 대한 대중의 호감도 상승도 주효했다. 현대인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불교 교리도 대중을 이끄는 데 한몫했다.

예스24 마케팅본부 PR팀 김민희 선임은 "불교 관련서의 판매 증가는 최근 마음의 평안과 내면 회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교 교리에 공감하는 독자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MZ세대 유명인들의 도서 추천, 불교적 메시지를 접목한 콘텐츠 및 불교 박람회 이슈 등이 확산되며 젊은 독자들에게까지도 관심이 자연스럽게 확대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불교가 독자들에게 한층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텍스트 힙'과 '힙 불교'가 트렌드로 자리 잡은 만큼 당분간 불교 출판 시장의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